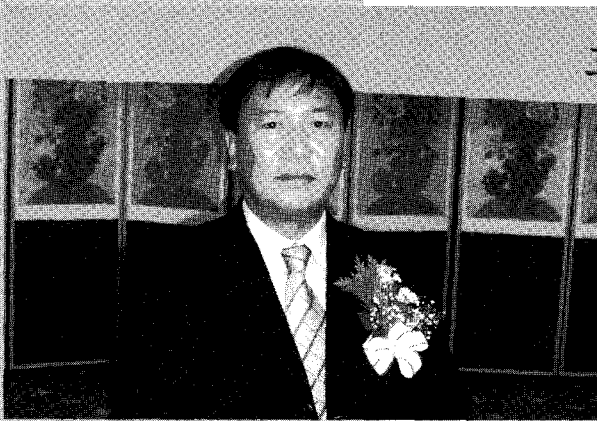


중량물포장업계 권익보호 및 기술혁신 기대 회원사 확보 및 주요 수출국과 교류 중대할 터



임 경 빈
한국중량물포장협회 회장

국내 중량물포장업은 1960년대 공업화와 더불어 70년대 초부터 전문업체가 생기기 시작했고, 중동지역 건설 붐으로 해외건설공사 수주의 증대 및 중화학공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해 왔지만 30여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음에도 업계를 대표할 단체가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지난 8월 21일 한국중량물포장협회는 중량물포장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협회를 결성,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간 협회 추진 발기인 대표였던 임경빈 서울수출포장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 중량물포장업계의 발전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임경빈 한국중량물포장협회 초대회장을 만나, 중량물포장업계의 현황 및 협회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난 70년대 말부터 여러번 단체 설립을 위한 시도 끝에 이렇게 협회가 창립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회원들과 긴밀히 협의해가며 업계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12월부터 단체 설립을 위해 협의회 형태로 업계 모임을 매월 가져온 중량물 업계는 지난 3월 말, 19개 업체가 시찰단으로 일본을 방문, 일본 포장업계 견

학 및 일본곤포조합과의 교류를 통해 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임 회장은 “기술 인력의 양성, 과당 경쟁 방지 대책의 수립, 정부 정책 수립에 대한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협회 창립을 계기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중량물 포장의 전문 기술자 및 기능공을 양성하고 중량물 포장비의 산출 기준을 만들어 가격표준을 정립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먼저 그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일본의 곤포관리사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임경빈 회장은 “기술자 및 기능공의 양성은 중량물 업계 종사자들에게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어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협회는 이미 일본의 곤포조합으로부터 곤포관리사 교재 일체를 기증받아 교재 제작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이달 24일,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해 현재 일본중량물 포장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표준가격 시산 기준 및 포장 견적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한국 중량물포장업계도 표준가격 계산 방법 및 표준 가격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중량물포장은 목재, 철재, 골판지를 비롯한 원부자재 생산업체뿐 아니라 운송업, 창고업, 해운업 등 많은 업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

로 한국중량물포장협회는 관련 업계 및 단체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유지하며 상호 정보의 교환을 통해 정부의 포장 관련 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임경빈 회장은 “기술자 및 기능공 양성 및 항만 인근에 중량물 포장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면서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항만 근접 지역에 중량물포장 단지를 조성해 포장, 보관, 통관, 운송, 하역 등 일괄 작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물류비를 절감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의 대표성 및 협회의 운영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많은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는 임경빈 회장. 그는 창립 첫 해인 2003년 회원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일본 및 중국과의 교류 뿐만 아니라 수출량이 많은 국가의 중량물포장 단체와도 교류를 추진해 물류 환경에 적합한 포장 기법을 개발, 보급하는데도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덧붙여 협회 창립을 축하해준 포장업계 원로들과 포장기술 전문가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내 수출 산업 증대에 일익을 담당해 온 중량물 포장업계가 협회 창립과 임경빈 초대회장을 필두로 업계 권익보호와 기술혁신에 앞장서 중량물 포장업계 발전에 이바지 하길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